

보다
BO DA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부평구문화재단

BODA 2016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06

부평구문화재단

vol.06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보다
BODA





부 평 에 서 , 음 악 으 로 자 라 납 니 다

지난 10월 13일,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열린 'BP 뮤직 컨퍼런스'에 참석한 미국의 뮤지션 Tim Tuten(Hideout 대표)은
 "음악은 소리가 아니라 감수성입니다. 어떤 장르든, 어떤 형식의 음악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통해 주인과 소통하고, 음악을 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음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부평밴드페스티벌'에는 유독 어린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부평에서의 음악은 이제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보금자리, 지속가능한 음악도시 부평의 눈높이가 되고 있습니다.

contents

BODA vol.06

시선



04

MAN FROM ART
Culture+ART,
기쁜 우리 문화 예술
'부평 생활문화축제 168'

생각



08

MUSICITY /
부평이 좋다,
음악이 미치게 좋다!
2017 부평밴드페스티벌

12

MUSICITY /
국내외 음악도시와 소통하다
BP 뮤직 컨퍼런스

14

ART SCENE /
11월이면 떠오르는
대중음악계의 전설
유재하 타계 30주기에 부쳐

18

LOOK INSIDE /
문화기획 3.0시대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인사이드 부평



22

VIEW FINDER 1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곳,
부평도서관을 아시나요?

26

VIEW FINDER 2
제11차 부평문화포럼 -
문화예술 분야 재원조성 전략

28

ZOON IN 1
루카텐트 사수 대작전
2017 하반기 포럼 연극_
부평문화사랑방

32

ZOON IN 2
즐거움 그리고 감동을 전달한
4th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36

ZOON IN 3
아름다운 발레의 향연,
환상적인 무대로의 초대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40

NEWS
2017 후원의 밤 외

미리보다



44

WHAT'S NEXT? /
웅장하고 화려한 우리 국악
2018 신년음악회 외

50

CALENDAR
클래식 동화 뮤지컬
페페의 꿈 외

INFO



57

INFO



기쁜 우리 문화 예술~ '부평 생활문화축제 168'

11월 어느 날, 부평 생활문화센터가 공연장이 되었다. 한국무용, 풍물놀이, 연극, 음악밴드, 오카리나와 트럼펫 연주 등 모든 공연이 감동의 연속이었다. 한편에 마련된 전시와 체험행사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축제가 끝난 후 사람들은 가슴 벅찬 감동을 안고 발걸음을 돌렸다.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맛보았던 '부평 생활문화축제 공감 168', 그 열정의 현장 속으로 떠나보자.



가족과 함께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를

다양한 취미활동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 168'은 다양한 상설체험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기획 공연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한다. 부평구문화재단은 '168'에 '1일상을 6유쾌하고 8팔팔하게'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부평 주민들이 문화생활에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2017 부평 생활문화축제 공감 168'이 그 중 하나다. 17일 전야제에는 연극 및 복합장르 공연, 18일 개막식에는 음악장르 부평예술인협회의 초청공연과 체험프로그램, 19일 폐막식에는 난타, 섹시붐, 라인댄스 등 무용 공연이 펼쳐졌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The Blue의 취향저격-습자지 꽃에 천연향 입히기, 아트 트리의 에코비즈&에코블럭 만들기, 인천부평풍물아리랑의 전통의상 입어보기, 한국오카리나앙상블의 나만의 오카리나 만들고 배워보기, 구립풍물단의 풍물 배워보기 등 알찬 구성으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 외에도 기획프로그램으로 마련한 청년기획단의 '시:음 라이트 페인팅, 당신을 잠잠이네 사진관에 초대합니다'는 어둠 속에서 청각에 의지해 몸짓만으로 야광물질을 이용한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사진으로 남기는 체험을 통해 연인과 가족 참관객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부평의 축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가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도 부평생활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실력을 갈고닦은 동호회 회원들이 행사에 참여했다. 바쁜 일과 중 틈틈이 연습한 춤과 노래, 연극으로 각자의 재능을 기부했으며, 관객들은 그 열정과 아름다운 공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 어느 때보다 멋진 무대로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축제였다.



동호회 회원들은 바쁜 일과 중 틈틈이 연습한 춤과 노래, 연극으로 각자의 재능을 기부했고, 관객들은 그 열정과 아름다운 공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INTERVIEW

김순정(엄마), 최가연(딸)

공연 보러 왔다가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 참여했어요. 평소 전통의상을 입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입게 돼서 너무 좋아요. 딸 아이가 예쁘다고 말해주니 기분까지 좋아지네요.



부평이 좋다, 음악이 미치게 좋다!

2017 부평밴드페스티벌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 젊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2017 부평밴드 페스티벌>(이하 <부평밴드페스티벌>)에서라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가슴 속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시절의 밤하늘을 화려한 멜로디로 물들인 <부평밴드페스티벌>, 그 현장으로 초대한다.

지난 10월 14일, 해누리극장 앞마당에서 <부평밴드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음악도시 부평만의 차별화된 음악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는 올해 5,000여 명의 관객을 기록하며 <부평밴드페스티벌>의 인기를 실감토록 했다. 본 행사에 앞선 부대행사로는 아트마켓과 오픈스테이지, 그리고 인천 청천초등학교 뮤직클래스와 인천 직장인밴드 <파란소리밴드>, 인천대학교 중앙동아리 그룹사운드 <크레파스>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졌다. 저녁 6시가 되자 야외무대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밴드페스티벌의 사회자 배순탁 씨가
우렁찬 목소리로 시작을 알렸다. 첫번째로 인천
부평을 대표하는 <정유천 블루스밴드>가 매력적인
스윙재즈 연주로 막을 올렸다. 이어 독일 신예 밴드인
'그래엄 캔디'가 바톤을 이어받아 관객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모두가 기다렸던
'장미여관'의 무대는 그 다음이었다. 익살스러운
표정과 특유의 개성있는 음악으로 엉덩이를
들썉이게 했으며, <오빠라고 불러다오>를 부를 땐
모두가 한마음 한 몸이 되어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었다. 조성모는 남다른 무대 매너로 국내
관객뿐만 아니라 일본 관객의 마음까지 훔쳤다.
댄스곡 <다짐>을 부르며 가족재킷을 흔들 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따라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야외에서 펼쳐지는 음악축제답게
신나는 라이브 연주가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마지막으로 부평 밴드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봄여름가을겨울'의 무대가 이어졌다. 사람들은
추위도 잊은 채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잔잔하면서도



음악도시 부평만의 차별화된 음악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는
올해 5,000여 명의 관객을 기록했으며, 본 행사에는 본 행사에는 '정유천 블루스밴드',
독일 신예 밴드 '그래엄 캔디', '장미여관', 조성모,
'봄여름가을겨울' 등 내로라하는 뮤지션이 등장해 관객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파워풀한 멜로디,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들의 음악이
시월의 찬 바람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봄여름가을겨울'의 앙코르곡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마지막으로 부평 지역 시민들과 함께했던
지역문화 예술축제 <부평밴드페스티벌>이 막을
내렸다. 페스티벌이 끝난 후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흥을 안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관객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감돌았다.
올해도 부평만의 매력을 입증하며 유니크한 축제로
자리 잡은 <부평밴드페스티벌>. 음악도시 부평이
음악을 통해 주민과 하나되는 축제로서 내년에도
최고의 라인업과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INTERVIEW



신정숙

부평에 산 지 12년 정도
됐어요. 일 때문에 매번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주말이라 올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알 만한
곡들은 없지만 밴드마다
악기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추위를 만들고 갈 거예요.

강지민, 강명주

백운역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고 알았어요.
작년에 한 번 왔었는데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친구와 함께 왔어요.
가장 기대되는 무대는
'장미여관'이에요. 오늘
어떻게 즐길 거냐고요?
작년에 제대로 못 즐긴
것까지 더해져 친구랑 같이
신나게 즐겨야죠!



정규만

부평에서 40여 년을
살았어요. 아트센터 바로
옆이 집인데, 항상 다양한
행사들을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빠짐없이
참여하려고 해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열어주니 부평 주민으로서
참 고맙고 뿌듯해요. 한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트센터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진형, 김승수

지나가다가 플래카드 보고
어떤 행사인지 궁금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놀랐어요. 평소
악기에 관심이 많고,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도
조금 다룰 줄 알아요.
아는 가수는 '장미여관'
뿐이지만, 다른 가수들의
무대도 기대돼요.



인사이드 부평

2017년 부평문화재단은 더없이 바쁘고 활기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서관으로, 부평아트센터와 부평문화사랑방 공연으로,
다채로운 이벤트로 부평 시민과 밀착 동행했습니다.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연극포럼과 지역 불우이웃을 위한
경매까지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화가 풍성한 도시, 부평의 위상에 발맞춘 2017 하반기의 다양한 장르의
물거리를 소개합니다.

Viewfinder

-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곳,
부평도서관을 아시나요?
- 제11차 부평문화포럼

문화예술 분야
재원조성 전략

Zoom In

- <루카텐트 사수 대작전>
· 4th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 <호두까기 인형>

News

- 부평영아티스트 3기 선정
· 2017 후원의 밤 개최
· 부평구문화재단 BI 발표



스웨덴과 시카고 등은 세계 유수의 음악도시로서 여전히 연륜과 명성을 지속하고 있다. 몇 년 전 음악도시로 기치를 내 건 부평이 10월 13일, 서구의 선배 도시들에 지혜를 듣고 아이디어를 마련하는 장이 열렸다.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열린 <BP 뮤직 컨퍼런스>에는 스웨덴, 베를린, 독일, 미국, 일본 등 해외 음악도시 전문가와 국내 음악도시 관계자들이 함께해 음악도시 사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국내외 음악도시와 소통하다

BP 뮤직 컨퍼런스

음악도시 산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걸음

부평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BP 뮤직컨퍼런스>는 음악도시 조성사업의 목표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국내외 음악도시의 현황과 정책 분석을 통한 비전 모색'이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박찬재 국회의원, 최만교 인천시의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찬재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과 김상길 부평구 부구청장이 인사말과 축사를 통해 음악도시의 주인인 부평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컨퍼런스 시작에 앞서 '음악창작소 음악도시 지역음악씬(Scene)의 형성과 음악산업 진흥'을 주

제로 이창희 미래볼뮤직대표가 기조연설을 맡아 음악창작소의 정의와 역할, 홍보는 물론 실무에서 비롯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를 전했다. <BP뮤직컨퍼런스> 첫 번째 세션은 '국내 음악창작소의 발전과 협력 방안'을 주제로 민상호(대구 음악창작소 운영총괄), 장성각(충남문화산업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권일구(울산중구청 문화관광실 주무관), 최희철(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팀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국내 음악창작소 홍보 영상을 본 후 대구, 충남, 울산, 전북 순으로 지역별 음악창작소 및 프로젝트 사업을 소개하며 음악창작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은 해외 음악도시에서 온 전문가들을 초빙해 '해외 음악도시 사례를 통해 본 부평음악도시의 비전'을 주제로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생생한 노하우를 전달, 음악도시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Tim Tuten(Hideout 대표, 미국)은 시카고의 융합된 음악 스타일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시

카고의 작은 오두막에서 시작된 하우스 음악이 20년 후 전 세계 밴드가 모여 공연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파티로 발전된 '하우드 아웃'을 예로 들며, 핫스타를 섭외하는 것이아니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세계를 대표하는 래퍼지만 어릴 적 문제아였던 시카고 출신의 찬스를 소개하며, 도시에서 탄생한 아티스트의 기부와 음악도시 발전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음악은 소리가 아니라 감수성입니다. 어떤 장르든, 어떤 형식의 음악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음악을 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음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강연자는 Norikazu Yamaguchi((주)버그 코퍼레이션 대표이사/프로듀서, 일본)였다. 여러 장르가 혼합된 어반뮤직인 '시부야케이' 음악의 첫

출발과 배경을 설명하고, 시부야케이 대표 아티스트 그룹의 영상과 음악으로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어 시부야 지역을 소개하며 수많은 아이티 벤처 회사들과 음악산업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화두로 던지며, 음악을 창조할 때, 유저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음악을 연결시키며 유료화할 때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는 음악에 가능성을 기술을 통해 확대시키는 유니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악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을 포용해야 하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발제자인 Satoshi Yamanaka(홍보/매니지먼트 전문가, 일본)는 자신이 태어난 1950년대 시절의 도쿄 음악부터 1990년대 시부야케이 음악 장르의 탄생 배경을 이야기하고, 친구이자 작업 동료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영화감독 이와이순지와 음악, 영화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악과 영화는 10대의 영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부딪힌 지금,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세대 차이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과 영화를 알려주는 큐레이터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평에서 훌륭한 큐레이터가 육성되고 좋은 작품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발제자는 Hasse Lindgren(스웨덴 예술지원기금 위원회 음악부 총 책임자, 스웨덴)로 스웨덴이 성공적으로 뮤직 비즈니스를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18세기 밥딜런의 최초 노벨상 수상, 19세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 교육 실시, 20세기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한 아티스트 발굴 등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 스웨덴의 음악산업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스웨덴이 훌륭한 여성 아티스트를 육성할 수 있었던 것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에 있었다.



"스웨덴이 음악도시를 성공적으로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기 음악교육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소규모

회사들은 인디 레이블로 서로 협력하며 성공을 거뒀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선 호기심이 많아야 하고, 꾸준한 학습과 지식 공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는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통해 경험을 쌓으며 성장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Lukas Drevenstedt(Clubcommission Berlin 사무국장, 독일)은 베를린의 음악과 클럽문화를 소개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그 중 클럽 운영자들이 모여 만든 '클럽커미션'에 대해 소개했는데, '클럽커미션'이란 대중과 정부를 대상으로 클럽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클럽 경영에 대한 회의는 물론이고 축제나 문화 관련 이벤트, 네트워킹 등을 통해 교류의 장을 펼치고 친목을 도모하는 곳이라 전했다. 그는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무료 워크숍 'EM-POWERMENT'의 소개와 함께, 청년들이 독립

적이며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음악도시란 음악이 도시라는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도시에는 사람들이 있고, 음악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음악과 도시가 융합되어 만들어진 클럽문화는 창의적이며, 그 문화의 주체는 바로 사람들, 그들 자신입니다.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음악은 풀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메세지와 성공적인 음악도시 산업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통해 음악도시 산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간과 자본 투자의 중요성과,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공공기관 및 공간의 혁명의 필요성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음악도시 형성은 역사성을 나타내며 여기에 교육이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세션은 '지방자치단체 음악도시별 정책 간 특징'을 주제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음악도시 산업들과 각 도시의 추진 현황 등을 정책담당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었다. 김인수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 김정열 도봉구 신경제사업과 서울아레나팀장, 오정명 동두천시 전략사업과 국제교류팀장, 김정렬 부천콘텐츠센터 음악창작소 총감독이 참여해 발표를 마쳤다. 서빙기 헤드럴경제 대중문화 선임기자는 음악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음악과 지자체를 묶는 과도한 스토리텔링을 주의할 점으로 꼽으며, 항상 정확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고, 특히 아픈 역사를 스토리화 할 때는 더욱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柳在夏

1962-1987

11월이면 떠오르는 대중음악계의 전설

유재하 타계 30주기(1987~2017)에 부쳐

글 박준홍(BP음악산업센터 센터장)

유재하는 1962년 6월 6일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태어났고, 1987년 8월에 자신의 데뷔 앨범이자 유작 앨범이 된 <사랑하기 때문에>를 발표했다. 같은 해 11월 1일 새벽 3시 27분경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강변북로 부근에서 술에 취한 친구 성(成)씨가 몰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충돌하여 사망했다. 향년 26세였다.

그는 1984년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서, 1986년 '김현식과 봄여름가을겨울'에서 키보디스트로 활동한 후 1986년 12월부터 1987년에 3월까지 서울 스튜디오에서 조원익의 프로듀싱과 최세영의 녹음으로 1집을 녹음한 경력이 전부이니 실제로 유재하가 대중음악계에서 활동을 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음악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유재하 1집이 발매되었을 때 이를 안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의 흔적은 조용필 7집에 수록된 <사랑하기 때문에>와 김현식 3집에 수록된 <가리워진 길>, 4집에 수록된 <그대 내 품에> 정도만 남아 있다.

2013년 11월 초 KBS 쿨FM에서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노래로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뮤지션'을 주제로 방송했던 유재하 음악다큐멘터리나 몇몇 지인들의 증언 정도에서 그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유재하 음악다큐멘터리 <유재하, 청춘의 꿈으로 피다>에는 '봄여름가을겨울', 김광민, 장원영, 장기호 등 고인의 음악적 동료였던 뮤지션들이 풀어낸 고인에 대한 추억과 음악 세계를 생생히 담아냈다는 것이 흥미롭다. 유재하의 어린 시절 친구인 봄여름가을겨울 전태관은 "재하는 이소룡 흉내 내는 걸 좋아하던 개구쟁이였고, 초등학교 때부터 기타 치고 노래했던 독특한 친구였다"고

짧았던 음악 생활을 뒤로
하고 세상을 떠난 탓에
유재하에 관한 기록은
많이 남아 있지 않고,
그가 어떻게 음악을 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말하고, 또 고인과 20대를 함께 보낸 '봄여름가을겨울' 김종진은 "재하는 무대 위에서 '깽', '오빠' 소리 듣는 걸 좋아했던 친구였다"고 기억하고 있어 그의 또 다른 이면을 보는 것 같다.

그렇다면 1987년 당시 발표된 유재하 1집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어떤 지점에 있을까? 세간의 평가처럼 '불쑥 등장한 음악 천재의 작품'으로 얘기하며 '유재하 이전과 이후'로 한국 대중음악사를 나누는 것이 적절할까? 유재하의 음악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1970~1980년대 한국 대중음악계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작품으로서의 음반 개념인 '앨범'이 처음 나온 것은 1964년 신중현이 이끄는 애드워 1집이었고, 이후 1968년 펄시스터즈 데뷔 음반부터 1975년 대마초 파동 이전까지는 록 음악, 포크 음악의 혁명기였다. 1930년대에 음반시장이 활성화된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는 말 그대로 '트로트가 대중음악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지만 신중현 이래의 록 음악과 한대수, 김민기 이래의 모던 포크는 1970년대 초반 '청년문화' 사조와 결합하면서 대중음악에 장르적인 다양성을 부여했다.

1980년대 초중반에는 많은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이 창작적인 면에서 암중모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조동진과 주변의 어떤 날(조동익, 이병우), 시인과 촌장(하덕규, 함춘호), 이정선과 주변의 엄인호, 한영애, 김현식, '따로또같이'(이주원, 나동민, 강인원)와 주변의 들국화(전인권, 최성원, 조덕환, 허성욱), 최구희, 주찬권, 손진태, 시나위(신대철)와 주변의 많은 헤비메탈 밴드들, 그리고 버클리음대로 유학을 떠나는 한상원, 정원영, 김광민, 한충완과 주변의 김종진, 전태관, 장기호, 박성식,





그리고 유재하가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나이 차이를 떠나서 상호간에 음악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김현식을 고리로 ‘신촌블루스’ 멤버들과 김종진, 전태관, 유재하 등이 만남을 가졌고, 유재하를 고리로 조용필과 김종진이 만났을 수도 있다.

그리고 1984~1987년은 음악창작자들의 들끓는 창작열이 음반으로 표출되던 시기였는데, 장르나 스타일도 꽤나 다양했다. 1984년 ‘따로 또 같이’ 2집을 필두로 1985년 들국화 1집, 이정선 7집, 1986년 어떤날 1집, 시인과 촌장 2집, 한영애 정규 1집, 시나위 1집, 1987년 이문세 4집 그리고 유재하 1집이 대표적이다. 한영애 1집에서 <건널 수 없는 강>을 들어보면 마치 재니스 조플린이 노래를 부르는 듯한 폭발적인 가창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가능한 보컬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와중에서도 유재하의 음악은 독특한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유재하의 음악을 흔히 말해 ‘고급 가요’의 시작으로까지 얘기하는 이들이 있고, 1990년대 신승훈 음악과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이들이 있을만큼 유재하의 음악적인 문법과 뉘앙스는 다르다는 얘기이다. 내 생각에 유재하가 한양대 작곡과 출신으로 클래식을 공부했다는 이력 때문이 아니라 1970년대~1980년대 초반 특정 한국 대중음악을 청취한 경험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물론 추측이고,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유재하의 음악적인 정서는 현경과 영애의 1974년 1집, 메아리의 1979년 1집, 이승희의 1980년 1집과 같은

음반들이 보여주는 ‘체념’이나 ‘허무’의 정서 그리고 깊은 ‘침잠’에 맞닿아있다고 생각한다. 현경과 영애의 <아름다운 사람>이나 메아리의 <금관의 예수>를 들을 때 느껴지는 정서 말이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7년 전에 같은 스튜디오에서 같은 엔지니어가 녹음한(서울스튜디오 최세영) 이승희의 1집도 떠오른다. 단지 클래식 소편성 편곡이 몇몇 곡에 있다고 해서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얘기하고 싶다. 또한 <우울한 편지>에서 들려주는 피아노의 재즈적인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1980년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가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고, <텅 빈 오늘 밤>은 ‘사랑과평화’ 출신의 키보드리스트 김명곤과 같은 이들의 1980년대 편곡 스타일 또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 소속되어 있을 당시 경험에 따른 것으로 생각한다.

어찌 보면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과 함께 <텅 빈 오늘 밤>은 앨범에서 가장 독특한 곡일뿐만 아니라 후대 뮤지션들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곡일 수도 있다. 이에는 오석준의 1988년 1집, 박학기의 1989년 1집으로 이어지는 음악적인 경향이 엿보인다. 박학기 1집에는 김현철 작사/작곡으로 이병우가 그의 세션 경력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호쾌하게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하는 <북강변>이란 노래가 있는데, 이는 <텅 빈 오늘 밤>과 묘하게 오버랩된다.

많은 이들이 유재하가 ‘고급 가요’의 선두 주자로서 후대 뮤지션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창작자로서의 태도’가 영향을 주었음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뮤지션들에게서 음악적인 유사성을 발견한 경우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는 이문세의 작곡가였던 이영훈의 작품 사례와도 비슷한데, 그래서 유재하의 음악은 ‘독보성’을 가진 것이다. 사실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같은 경우도 2003년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에 쓰이면서 많이 알려졌고, “그게 유재하의 곡이었어?”라는 반응을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론 발표된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선하다’는 평가를 이끌어 낼 정도였다.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린 26살 청년의 음악 인생에 대한 애처로움 때문에 그를 ‘천재’라고 표현하고 신화화할 것만은 아니다. 당시에도 제2의 유재하가 혹시나 더 있었는지, 지금도 그런 이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마음도 같이 가졌으면 한다. 그것이 유재하를 기리는 또 다른 방법일 것이다.

부평 생활문화센터

공감 181분기 수시대관 안내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 181은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입니다.



대관 기간

2018.12.(화)~
3.31.(토)

대관 장소

오픈스페이스,
연습실 1, 연습실 2,
연습실 3, 연습실 4,
다목적 홀, 모임방 1·2·3·4,
영상편집실,
프로그램실 1, 프로그램실 2

사용 가능 시간

오전 타임	3시간
10:00~13:00	
오후 타임	3시간
14:00~17:00	
저녁 타임	4시간
18:00~22:00	

사용료

오픈스페이스	2만 원
다목적홀, 연습실,	
프로그램실	1만 원
모임방, 영상편집실	무료

한 타임(오전, 오후-3시간/저녁-4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시
한 시간당 전체 사용료의 20% 가산

대관 문의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32-500-2064



‘— I o’, 극단 노니 / 실험적인 콘템포러리 공연작품 ‘이중나선’, 원일 예술감독

문화기획 3.0시대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글 윤성진. (사)한국문화기획학교 상임이사
사진 서울남산국악당 제공/사진작가 조현주

2015년까지 광역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舊 지역 협력형사업)의 전국단위 평가를 진행하면서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재단의 지원사업의 변화추이를 보아 왔던 필자는 지역별 지원사업의 기획과 재단의 의지, 지원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에 따라 지역문화예술계가 어떻게 성장하고 침체될 수 있는지를 7년 정도 지켜본 적이 있다. 7년여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속해왔고 관련하여 많은 강의를 해 왔다. 실질적인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 LPA(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기획전문가 과정)과정을 예술위원회의 지원으로 2년간 운영하기도 했다. 최근까지 광역문화재단은 경북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설립이 되었고, 기초문화재단도 2017년 1월 기준 60개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급속도로 문화재단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문화가 획기적으로 성장하거나 지역예술 창작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역축제, 지역문화공간과 공연장, 생활문화지원사업에 최근에는 도서관까지 기초지자체

의 지역문화재단이 맡아야 하는 과제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반가운 현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한된 인원으로 늘어난 과업을 감당하는 데 따르는 한계가 드러나기도 한다. 재단 직원들은 행정의 요구에 따르면서 많은 업무에 치이다 보면 수년 만에 쉽게 관료적이 되기도 한다. 말은 업무들이 너무 많아 매주 지역예술인들을 만나거나, 정기적으로 지역 문화현장을 방문하며 지역에 새로 올리는 공연과 전시를 감상하고 지역의 문화생태계의 강화를 위해 고민하는 데 시간을 쓰라고 이야기하기 미안할 정도이다. 하지만,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역량에 따라 지역에 건강한 문화생태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허약한 문화생태계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이 지금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 위해 무엇을 고민하며 스스로를 성장시켜야 하는 이유이며 달라진 역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문화현장은 항상 문화행정을 앞서 변화하고 있는데 행정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에도 힘들다. 이것은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가 갖춰야 할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같은 원칙 때문에 나타나는 숙명적 현상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적폐로 문화계의 여전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 문화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정치적인 관점과 낙후된 행정서비스로 인해 힘겹게 버텨오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19세기의 학교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교육에 대한 이러한 지적처럼 이 땅의 예술지원 제도 역시 80년대에 정교화된 예술지원체계와 90년대에 교육을 받은 문화행정가들이 21세기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있는 현상이 지역문화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술가들의 마인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의 방식, 도시와 예술가의 관계 등 모든 부문에서 문화기획 1.0시대의 체계와 문화기획 2.0시대의 이해로 문화기획 3.0시대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기획 3.0시대라 할 수 있는 지금의 현장 예술활동의 변화와 문화트렌드의 변화를 읽어내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예술지원 체계와 지원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되어야 한다. 문화기획 3.0시대의 문화예술계 변화를 7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보았다. 7가지 측면은 문화기획 단계별로 비교해보았을 때 의미가 있는 7개의 관점을 정리해본 것이다. 첫째, 문화예술활동의 내용적 범위 둘째,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적 범위 셋째, 문화예술교류의 변화 넷째, 문화예술과 도시와의 관계 다섯째, 지역문화기획 전문인력 육성과 리더십 여섯째, 지역문화 이해의 관점변화 일곱째, 예술수용자와 문화예술활동과의 관계 측면에서 지역문화 예술활동을 문화기획의 시대별로 구분하여 아래 도표처럼 정리해보았다.

도표화 된 내용은 지역문화재단 직원 교육을 하면서 지난 몇년간 여러 광역문화재단과 기초재단을 방문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며 ‘문화기획 3.0시대에 지역문화예술지원을 위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리했던 강의자료이다. 이 자료는 지역문화재단이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현장과 문화기획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을 제시하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2년 전에 처음 정리했던 자료라 이미 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겠지만

	문화기획 1.0	문화기획 2.0	문화기획 3.0
내용적 범위	- 장르중심적 기획 - 예술장르별 수월성 제고	- 타장르 수용 및 소통 - 장르간 협업체계 마련	- 장르융합과 탈 장르화 - 협업적 창작 문화 확산
공간적 범위	- 활동지역 중심 1개도시(지역) 근거	- 도시간 지역간 교류확대 - 거점공간으로서의 지역	- 탈 지역적 활동과 지역밀착형 활동의 공존 - 지역거점의 활동의 외연 확대(지역에서 세계로) - 국제교류활동 일반화
예술교류	- 일방향 초청 - 일회성 초청	- 상시적 교류 관계 시도 - 채류, 활동기간의 연장 - 쌍방향 초청, 일체적 활동	- 다층적 교류활동 - 공동창작 및 공동기획 - 쌍방향 지원 - 전문-민간 영역의 넘나들
도시와의 관계	- 도시를 소비하는 문화 - 도시공간의 이용자 - 도시와의 소통 단절	- 도시와의 소통과 재해석 - 다양한 공간의 개발, 활용 - 일상공간의 문화적 변용	- 도시전체를 문화적 텍스트로 해석하는 시도 - 문화적 도시재생 확대 - 창조적 도시공간 개발

필자의 의도가 전달된다면 아마 지혜로운 재단의 전문인력들이 스스로 내용을 채워가고 업데이트해가며 지역문화 이해의 관점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강의가 아니고 지면관계상 도표 한 칸 한 칸에 적은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도표의 전반적인 의도와 의미를 이해한다면 충분히 해석가능하리라 본다.

아울러, 지역문화재단의 문화기획 1.0시대와 2.0시대의 과제가 문화공간, 문화복지, 예술진흥, 문화예술교육에 치중해 왔다면 달라진 문화기획 3.0시대에 지역문화재단에 추가된 새로운 과제는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았다. 첫째로 문화도시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지역정체성의 확립을 들 수 있을 것이며 둘째는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지역문화정책 수립의 주체가 되었음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지역축제로 지역축제 지원 및 활성화, 마을 단위 공동체 축제단위의 축제 육성과 운영이고, 넷째는 문화생태계로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축과 문화생태계 강화를 통한 지역문화예술계의 자립기반 확대를 들 수 있다. 마지막, 다섯째로 인력육성의 측면으로 지역문화기획 인력의 육성과 지역문화기획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으로 지역의 문화가 온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결국 법은 우리 활동의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 속에서 내용을 채워가고 지역을 변화시켜가는 것은 법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활동가들과 문화기관들의 역할일 것이다.

지역문화재단은 우리나라의 문예지원 활동의 역사상 가장 큰 과제를 감당해야 하는 문화기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많은 요구와 기대되는 역할에 비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은 부족하고, 지역의 행정은 오히려 재단 전문인력들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과도한 업무와 행정서류에 치이고, 지역 예술인들의 과도한 민원과 수많은 행사를 치러내는 힘겨운 일상 속에서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깨어있으면서 지역문화의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재단은 무엇보다 재단 자체의 인력을 지역문화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고 지속해야 한다. 재단의 전문인력은 지역 문화기획인력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역문화예술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감한 문화예술지원사업 기획 전문가로 성장해야 한다. 재단과 재단의 전문인력들에 이렇게 무리한 과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역문화의 발전과 지역문화예술생태계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마스터키가 지역문화재단과 재단을 구성하는 전문가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곳,

부평
도서관을 아시나요?

책과 벗하며 자라난 아이는 어떤 아이로 성장할까. 어릴 적부터 부모와 함께 드나들던 도서관은 공부방이 되고, 휴식을 위한 쉼터가 되며, 세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부평에도 주변을 둘러보면 일 년 내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많다. 다양한 테마로 부평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여유롭게 만드는 도서관 세 곳을 들여다봤다.

부평구립도서관의 <도서관별 특성화 사업>

부평구립도서관 6개 관에서는 예술, 영어, 환경과 생태, 사회과학, 가정-육아, 다문화 분야 등 도서관별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 구매비의 10~15%를 특성화 도서 구매에 사용하고, 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의 전문성 강화, 타 도서관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환경과 생태 분야 특화 도서관, 부평기적의도서관

2006년 3월에 개관한 도서관으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종합자료실, 영유아방, 다목적실, 쉼터, 야외쉼터, 동아리방 등을 갖추고 있다.

부평기적의도서관에서는 환경과 생태에 관한 도서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생태계'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형식으로 구성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절기로 만나는 숲 생태놀이>는 부모와 아이가 한 팀이 되어 도서관에서 꽃과 나무 등을 공부하고 직접 산을 찾아 자연 생태를 체험하는 1년간의 장기 프로그램으로 가장 인기가 높다. 도시 생활이 익숙한 아이에게 계절별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환경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공연과 생태 작가를 만날 수 있는 <생태환경 책 축제>, 도서관에 텐트를 치고 하루를 보내며 자연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보는 <도서관 하룻밤>, 어린이 사서가 설명해주는 생태 이야기 등 환경과 생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주소
부평구 길주남로
166(부개동)

운영시간
월
휴관
화~수, 금~일
09:00~18:00

목
09:00~20:00

문의
032-505-0612~13

홈페이지
www.bppl.or.kr

영어 분야 특화 도서관, 삼산도서관

2012년 5월에 개관한 삼산도서관은 영어 분야 특화 도서관으로 총 44,217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린이자료실, 영어·멀티자료실, 종합자료실, 문화아지트, 다목적 홀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영어·멀티자료실 내에는 수준별 영어 원서와 영어 잡지가 비치되어 있으며, 전자책, 이러닝 교육, 영어 레벨 테스트 등 멀티 자료를 통해 어린이와 어른 누구라도 보다 쉽게 영어 관련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삼산도서관은 영어 분야 특화 도서관답게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이 눈길을 끄는데, 영어 테마 도서전을 비롯하여 원어인 영어 프로그램 <내 이름은 제이슨>, 영어 뮤지컬 <맘마미아>, 해외여행을 위한 영어회화 <말문이 열리는 여행영어> 등 영어를 주제로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고 있다. 또한 삼산고등학교 영어 동아리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매년 다양한 주제로 선보이며 지역 주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주소
부평구 부평북로 445(삼산동)

운영시간
월
휴관

화~금
1층 어린이자료실,
2층 영어·멀티자료실
09:00~18:00,
3층 종합자료실
09:00~22:00,
토~일
09:00~18:00

문의
032-330-7012~14

홈페이지
www.bppl.or.kr



예술 분야 특화 도서관, 부개도서관

부개도서관은 예술 분야 특화 도서관으로 2012년 9월에 문을 열었다. 지상 3층 규모로 어린이자료실, 다목적실, 영유아실, 누리터, 종합자료실, 문화아지트, 디지털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정문 앞 작은 놀이터와 공원은 방문객의 쉼터 역할을 한다. 도서관 종합자료실 입구에 마련된 뮤직존(MUSIC ZONE)은 부개도서관의 핫플레이스. 음악 전문 서가로 꾸며진 뮤직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음반이나 음악관련 서적, CD 등이 비치되어 있어 책으로 음악을 이해하고 예술의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예술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감성을 자극한다. 일상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뮤지시티 인 라이브러리>, 오페라 작품을 감상하고 소통하는 <북페라 아리아>, 예술적 호기심과 감성을 자극하는 <숨은 클래식 찾기>, <가요 인문학> 등 음악 도시 부평과 함께 예술 특화 도서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주소
부평구 부일로83번길 46(부개동)

운영시간
월
휴관

화~금
1층 어린이자료실
09:00~18:00
2층 종합자료실
09:00~22:00,
토~일
09:00~18:00,

문의
032-505-0062

홈페이지
www.bppl.or.kr





문화예술을, 말하는 사람들 & 행하는 사람들

제11차 부평문화포럼 - 문화예술 분야 자원조성 전략

문화예술분야 자원조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이야기

기부금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분야의 자생적 자원조성 방안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제11차 부평문화포럼'이 열렸다. 왕치현 인하대학교 문화경영학과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재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순회사무부장, 김종욱 휴먼트리 마케팅 이사 그리고 박정혁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장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먼저, 김재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순회사무부장은 '문화예술분야 자원조성의 흐름 및 방향'을 주제로 문화예술의 활동과 자원조성의 유형, 공공지원과 민간지원(기부)의 정의와 서로의 관계에 대해 협력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공공지원 주체와 예술단체가 각자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대로는 공공지원 주체의 경우 기부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조성, 예술단체 경영에 대한 폭넓은 컨설팅과 사례발굴 및 제공 등이 있었으며, 예술단체의 경우 '단체 운영이 어렵다, 예술은 돈이 부족하기에 기부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일이므로 기부가 필요한 멋진 곳'이라는 자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 예술을 아끼고 후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들며 그 중 '예술이 기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예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수치화된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고, 그것을 근거로 후원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욱 휴먼트리 마케팅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자원조성 전략-기부자 개발과 모금설계'를 주제로 구체적 사례를 들며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설계 전략을 공유했다. 김종욱 이사는 목표와 계획의 정의를 물어본 뒤 '목표는 가야 할 방향과 제시하는 지시등이며 해결할 과제를 알려주는 과업지시서'이기에 목표부터 잘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당신의 단체는 기부자를 설득할 어떤 매력에 있는가', '기부자 시선으로 보고, 기부자 언어로 말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것을 쓰기', 'ShareTainment', 유머의 힘' 등의 메시지를 통해 과제 해결 아이디어 팀을 공유하고 국내외 사례를 들어 청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이사는 "결국은 우리가 바꾸고 싶은 꿈, 설렘에 대한 이야기"라며, "모두의 가슴에 설렘이 있길 바란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발제를 마쳤다.

기부가 생활의 일부가 되는, 아름다운 가치에 의한 토론

이어 앞서 발표한 발제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자원조성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는 강운주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김홍남 서울문화재단 제휴협력 실장,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이사가 참여했다. 강운주 교수는 잉글랜드(ACE)와 한국 예술위원회(ARKO)의 거버넌스 체계를 비교하고 ARKO의 현황에 관해 이야기했다. 특히 ACE의 주요 제



원은 국고 출연금이며 복권기금을 합쳐 한화로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2001년 이후 국고 출연중단에 더해 2003년 이후 모금 중단되며 현재 기금 고갈을 눈앞에 두고 있기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향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팔길이 원칙'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논하며 ARKO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감사와 평가는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연중행사의 성격에서 벗어나 조직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의 성격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예술 활성화로 인한 민간 기부의 중대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보는 예술'에 비해 '생활 예술'은 교육, 시장, 예술의 기반 조성, 관객 확보 등 다차원적으로 예술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며 생활 예술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다음으로 김홍남 서울문화재단 제휴협력 실장은 개인을 통한 기부보다 지자체 기부가 쉬운 이유를 들며, 기업 제휴 기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과 매칭해 기부한 단체의 기부 경험과 느낀 점을 인터뷰 후 이를 새로운 기부 단체와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인 기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모금 영역에서 기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인 '공감'을 얻기에는 장벽이 큰데, 그 이유는 첫째 자발적 선택이라는 인식, 둘째 예술계 내에는 큰 편차가 존재한다는 인식, 셋째 예술계에 대한 공공지원이 많

고 정책적 지원 또한 늘고 있다는 생각, 넷째 재난과 환경보호 영역보다 절실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라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계의 자원조성 노력이 활성화되려면 영역별로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며, 예술계의 본질적 가치와 특성에 대한 이해또한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에 왕치현 인하대학교 문화경영학과장은 기업과 문화예술의 연결은 마케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김종욱 이사는 모금 컨설팅 시 단체의 사업 프로그램 설계가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 황신애 이사는 '시민의 참여가 답이다'를 주제로 역사의 흐름과 시대의 발전을 통해 후원(모금)의 정의가 달라졌음을 언급하며, 후원해야 하는 적극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후원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 '후원=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으며 후원회 조직의 특수성, 활성화의 3가지 장점과 현실의 어려움을 정리해 설명했다. 후원회는 초기 설계와 디자인, 소통 구조가 필요하고 이를 수행할 기관 내부의 구체적인 조직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부평구문화재단이 향후 후원회 조직 운영 사례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손꼽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과 함께 토론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금이 있는가', '아트워크를 기부하는 사례가 있는가' 등 문화예술 기금에 관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아이 캔 야!”



초원의 형제들아
모여라~!

루카텐트 사수 대작전

2017 하반기 포럼 연극
부평문화사랑방



어느덧 무대에는 인디언 친구와 아이들이 함께 서 있었다. 아이들은 관객이 되기도 하고,
무대 위 배우가 되기도 했다. 의젓하게, 때론 엉뚱한 생각과 의견을 표현해준 아이들의 스토리로 완성된
<루카텐트 사수 대작전>. 아이들과 인디언 친구가 초원의 형제가 되어 완성한 연극 무대가 궁금하다.



인디언의 세계 속으로~

지난 12월 8일, 인천갈월초등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연극이 부평 문화사랑방에서 진행되었다. 오전 11시가 되자 아이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고, 어느덧 좌석을 가득 메웠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자리에 앉은 아이들은 기대에 부푼 얼굴로 연극이 시작하기만을 기다렸다. 무대에 조명이 비추고, 남자 인디언과 여자 인디언이 등장했다. 초원의 형제들이라 칭하는 인디언들은 가슴을 ‘톡톡’ 2번 친 후 손을 들어 “아이 캔 야”라고 인사했고, 아이들은 마치 어제 만난 친구처럼 “아이 캔 야”라고 외치며 인사를 건넸다. 초원의 형제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인디언식 이름(자신이 하고 싶은 이름)이 필요하다는 말에, 아이들은 종이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가슴에는 ‘마음이 넓은 바다’, ‘공부하기 싫어’, ‘놀 거야’ ‘잠만 잘 거야’ 등 순수하고 엉뚱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름들이 붙여졌다. 인디언 친구들을 따라 눈을 감고 친구와

손을 맞대어 움직임을 느끼거나,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까르르 웃음꽃이 피었고, 인디언 할머니가 들려주는 ‘하얀 늑대, 검은 늑대’ 이야기를 듣고 마음 속의 늑대를 소환해 무대에서 직접 흉내내보며, 마음 속 속상한 일들을 훌훌 털어냈다. 아이들은 인디언들이 다루는 것을 보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김민기, 신형준

인천 갈월초등학교 5학년

김민기 :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노는 기분이 들었어요.

신형준 : 보고 듣기만 하는 공연이 아닌, 참여형 공연이라 좋았어요. 부평 문화사랑방에서 진행하는 공연들은 주인과 소통하며 이어나가는 분위기라 더 재미있어요.

이보령

인천 갈월초등학교 5학년

소통하는 공연이라 연극 배우들이랑 수다를 떠는 느낌이었어요. 생동감있는 시범도 재미있었고, 친구들이랑 배우들이랑 같이 즐겼던 시간이었어요. 다른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나 학원 친구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어요.



이강욱, 조영우

인천갈월초등학교 5학년

이강욱 : 앞에서 연극하는 분이 재미있게 해주셔서 친구랑 많이 웃었어요.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인디언 이름짓기 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제 인디언 이름은 ‘관종’이라고 지었어요.

조영우 : 제 인디언 이름은 ‘집에만 있고 싶어’예요. 방학에 집에만 있으니 편하고 좋았거든요. 오늘 연극은 직접 체험해서 이해가 잘 되서 좋았고, 인디언 생활 모습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연극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나가는 유쾌한 경험을 했다.

함께 즐기는 유쾌한 연극

<루카텐트 사수 대작전>은 배우의 연기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인디언의 세계를 경험해보는 관객참여형 연극으로 보다 의미가 있다. 인디언식 이름을 짓고 인디언의 생활 방식과 지혜를 체험하고 느껴보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선사한다. 이 공연은 명저 <내 영혼의 따뜻한 날들>과 <오늘은 5월 18일>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삶의 터전을 지키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자연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지혜와,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 또 자녀들은 나와 타인 그리고 사회, 나아가 자연과 함께 어떻게 공생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나가는 유쾌한 연극이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으며, 단체 관람도 가능하다.



‘경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낙찰에 실패해 낙담하는 얼굴들이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이곳은 경매의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난다. 판매하는 사람도, 낙찰된 사람도,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 모두 즐거웠던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그 현장을 소개한다.

즐거움, 그리고 감동을 전달한

4th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미술품 자선경매,
‘진짜’ 나눔을 팔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지난 11월 9일 예술로 나누고 마음을 더할 수 있는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을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에서 진행했다.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은 작가와 지역 기관이 함께 특별한 사회적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나눔 문화로, 예술을 사랑하고 선한 마음을 이웃과 나누고 싶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미술품 자선경매다.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은 2014년 처음 예술을 통한 나눔의 기쁨을 누린 후 네 번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작가 48명이 참여했으며, 회화, 도예, 사진, 일러스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매년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술품 자선경매의 취지에 맞춰 작품을 출품하는 작가들은 부평영아티스트를 포함한 신진작가들과 중견작가, 그리고

블루칩 옐로우칩 작가들로,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부평아트센터를 찾는다. 경매 시작에 앞서 부평구문화재단 박옥진 대표이사는 “좋은 의미의 기부, 무엇보다 지역 예술가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참가해주신 덕분에, 그 도움을 받아 올해로 네 번째 행사를 가꿔나갈 수 있었습니다. 부평은 단지 음악만이 아니라 문학, 미술, 미디어, 무용 등 다양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문화도시를 꿈꿉니다.”라며, 이에 뜻을 함께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여한 시민과 작가, 기부단체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부평구문화재단 최도현 후원회 회장과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명환 회장은 축사를 통해 네 번째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개최를 축하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매 현장을 가다

이날 행사는 김민서 미술 전문경매사의 진행으로 총 83점의 미술품 자선경매가 이루어졌다. 시원시원한 목소리의 경매사가 호명할 때마다 경매장은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경매 전 프리뷰 전시 기간 동안 경매에 출품된 작품들의 컨디션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에 마음에 든 작품의 경매 순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집중했다. 몇몇은 프리뷰 전시 기간 동안 직원들의 도움으로 서면 사전 응찰에 참여하여 당일 응찰에 임하기도 했다. 어색한 듯 번호표를 수줍게 들었던 시민들은 오가는 경매의 짜릿함을 경험했고, 낙찰의 기쁨을 맛본 이와 패찰의 씁쓸함을 맛본 이의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을 모두가 함께 즐겼다. 이것이 바로 경매의 참 묘미가 아닐까. 특히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라는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부평구문화재단이
대리인으로 서면 응찰을
진행했다.

부평구문화재단
박옥진 대표이사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명환 회장



올해로 3번째,
김민서 미술
전문경매사가
경매를 진행했다.



INTERVIEW



김지연 작가

부평아트센터 ‘부평영아티스트’로 선정된 후 좋은 취지의 자선경매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그림이 주인을 찾진 못했지만 내년에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참여하고 싶어요. 옥션에 처음 참여했는데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조성훈 작가

부평영아티스트로 활동하며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 때 큐레이터분에게 자선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한 나눔이라는 취지도 좋아 많은 작품으로 참여하고 싶었는데 참여하시는 작가분들이 많아서 2점만 출품했어요. 부평시민들과 예술분야 관계자분 등 많은 분들 앞에서 제 작품을 선보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임상희 작가

안타깝게 오늘은 유찰 되었어요. 그래도 매년 좋은 기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행사를 즐겼어요. 이곳에 오면 다양한 연령대와 분야의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어 좋아요.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에 참가한 몇몇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또한 작가로서 공부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내년에도 좋은 작품, 좋은 인연, 좋은 나눔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역의 슬로건을 잘 보여주는 사업으로, 낙찰이 되면 작품 소장은 물론이고 작품 구입 비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낙찰자의 이름으로 기부되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지는 뜻깊은 행사다. 긴장감과 유쾌함이 공존했던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을 통해 모두가 잊지 못할 추억과 원하는 작품을 소유하는 기쁨을 선물 받았다. 경매 후 11월 10일부터 19일의 전시 기간 동안에는 유찰작들에 한하여 애프터 세일로 판매되었는데, 망설이다 놓쳤던 작품들을 소장할 기회가 마련되어 아쉬움을 달래주었다. 예술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이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것은 뜻깊은 일이다. 이번 행사 역시 사람과 지역, 그리고 예술이 만나 나눔의 행복과 감동을 전함으로써 연대하고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을 보탤다. 앞으로도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이 지역예술과 미술시장 저변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예술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마음을 더하는 행사로 계속되길 기대한다.

아름다운
발레의 향연,

환상적인
무대로의 초대

The

Nutcracker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면 꾸준히 사랑을 받는 크리스마스의 전령사 <호두까기인형>이 올해도 돌아왔다. 지난 12월 9일, 10일 두차례 공연이
해누리극장 무대에서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이 열렸다. 전석 매진된 이번 공연은 아름다운 음악과 정교하고 우아한 군무의 향연을 선보였고,
관람객들은 '호두까기인형'과 함께 크리스마스 랜드로 여행을 떠났다.

부평아트센터에서 열린 <호두까기 인형>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으로,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환상적인 무대와 눈길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안무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동화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 황홀한 한 겨울밤의 꿈이었다.



국립발레단과 부평아트센터가 함께 선보이는 <호두까기 인형>은 수많은 동명의 작품들 사이에서도 매년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스테디셀러이자, 연말 공연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동화 원작의 작품이지만 어린이 뿐만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 시작을 기다리는 관람객들의 얼굴은 이미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다. 주말을 함께 즐기러 온 가족들부터 나이 지긋한 노부부, 젊은 커플들, 그리고 둘만의 데이트를 계획한 아빠와 어린 꼬마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공연장을 찾았다. 이윽고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조명이 무대를 밝혔다. 파티가 한창인 마리네 집 거실에 흥겨운 파티가 열리고, 가면을 쓴 마리의 대부 드로셀마이어가 아이들에게 지팡이를 세우는 마술을 보여준 뒤 마리에게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한다. 관객들은 이어 호두까기 인형이 '인형'이 아닌 무용수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며 감쪽같은 연기를 보여준 무용수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 곁에서 잠이 들고, 꿈나라 여행이 시작된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점 커지고 트리 밑에 놓여 있던 인형들도 생명을 얻어 살아 움직인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은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환상적인 무대와 눈길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안무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동화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은 예술성과 완성도 면에서 특출나다. 안무가 유리 그리고로비치는 '호두까기 인형'을 목각 인형이 아닌 무용수가 연기하게 했으며, 원작에 충실한 구성은 화려한 무용수들의 테크닉과 군무로 더욱 빛을 발한다. 특히 크리스마스 랜드에서 펼쳐지는 이탈리아, 러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콜롬비아, 캐나다, 인도 등 각국 인형의 춤이 공연의 재미를 더했고 클라라와 왕자의 춤은 최고의 장면을 선사했다. 클라라와 왕자의 결혼식 장면은 모두가 손에 꼽는 아름다운 무대다. 하얀 옷을 입은 무용수들은 마치 순백의 반짝이는 눈송이를 연상시킨다. 이 날 공연을 본 부평주민 이수형 씨는 "아이가 아직은 어리지만 둘만의 좋은 시간을 갖고 싶어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즐겁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또 함께 보러 올 생각입니다"라며 연말에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부평아트센터에서 열린 <호두까기인형>은 그동안 만나기 어려웠던 국립발레단의 수준 높은 발레 작품을 경험할 수 있었던 공연으로, 신비하고 환상적인 무대와 유려하고 테크니컬한 무용을 선보이며 관객에게 황홀한 시간을 선물했다.



Perennial Inspiration

부평영아티스트 3기 선정작가展

김지연 / 송영욱 / 신재은 / 임찬미 / 조성훈



송영욱 — stranger



임찬미 — korea Siberian tiger



신재은 — 네 앞 클로버가 있는 언덕



조성훈 — I was more worried about the croc than the people



김지연 — 학교책상, 의사

예술을 통해 작가 자신의 이야기와 내면의 생각들을 창작물로 시각화하는 젊고 유능한 신진작가를 발굴 및 지원해 발판을 마련해주는 부평구문화재단의 ‘부평영아티스트 공모전’의 ‘3기 선정작가’가 발표됐다. 이를 기념하여 10월 12일(목)부터 29일(일)까지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에서 ‘부평영아티스트 3기 선정작가展’이 열렸다. 현대 미술의 아트신을 이끌어갈 ‘라이징 아트스타’의 등장을 기대하는 이번 전시회는 전시 기간 중 ‘POP Prize’ 관객이 뽑은 작가’ 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전시는 5명의 작가가 동시대에 살고있는 개인과 사회가 느끼는 결핍과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시각화해 창작물로 풀어낸 ‘예술의 장’이었다.

‘부평영아티스트 3기’로 선정된 작가는 김지연(28, 저부조평면), 신재은(34, 복합설치), 송영욱(40, 설치), 임찬미(30, 평면), 조성훈(32, 평면)으로, 부평문화재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젊고 유능한 작가 5명에 대해 장기적인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향후 진행되는 기획전시와 여타 프로그램에 주요한 역할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공모는 1차 서류 심사에서 공모지원서, 작가 레주메, 작업계획서, 작품리스트, 포트폴리오 등을 통해 2차 발표와 외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거쳐 15명을 선정하고 비평가, 회화 전공 교수와 전문미술잡지의 편집장 등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5인을 선정했다.

부평구문화재단의 ‘부평영아티스트 공모전’은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 공모로 확대해 진행되었으며 부평구문화재단을 매개로 한국화단의 미래가 될 만한 가능성을 가진 작가들을 선정했다. 또한, 공모전의 취지에 맞게 참가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성취보다 ‘부평영아티스트’로서 향후 펼칠 미학적 발전의 잠재력에 가치를 두었다.

MINI INTERVIEW

신재은 작가

부평영아티스트 응모 동기

아트허브라는 블로그를 통해서 부평영아티스트에 대해 알게 되었고, 공모에 응했다. 이전에 선정되었던 작가분들의 작품이 흥미로웠다.

선정된 소감

나의 작품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통해 앞으로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앞으로 부평에서 함께하게 될 프로그램과 전시들이 기대된다.

앞으로의 작품 활동 방향 및 부평구문화재단에 대한 기대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가장 기대된다. 부평영아티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을 성장시키고 다양한 기회를 접하고 싶다.

선정작가전의

‘도시농업: 네 앞 클로버’ 작품의 메시지
애완 네잎클로버를 양식하는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합리성으로 포장된 현대인의 믿음을 비꼬는 작업이다. 클로버가 알칼리화된 오염 토양이나 과일 광합성에 의해 네 잎 클로버로 기형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도시에 유독 네잎클로버가 많이 발생된다는 연구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첨단 복합 도시, 도시의 합리적 시스템과 같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유토피아적 환경이 어찌하면 네 잎클로버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미신처럼 막연한 환상일 수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형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희망사항

예민하게 촉을 세우고 제 내면과 동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내고 작품에 농축시켜 담아내는 작가로 살고 싶다.



부평구문화재단은 후원회원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2017 후원의 밤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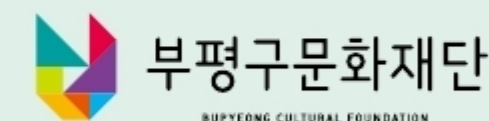


부평구문화재단이 후원회원과 시민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017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간 친목을 다지고 후원회원 및 시민회원 확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1월 8일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과 갤러리 꽃누리에서는 지역 기관장 및 후원회원, 시민회원, 예비 후원회원, 시민회원 등이 참석해 ‘2017 후원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다.

‘2017 후원의 밤’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됐다. 1부는 갤러리 꽃누리에서 리셉션, 2부는 달누리극장 무대에서 특별공연의 시간을 가졌다. 리셉션은 갤러리 꽃누리에서 간단한 다과회를 진행했고 회원간 환담과 건배 제의가 이어졌다. 이후 진보라 피아노 트리오의 연주와 국악공연, 뮤지컬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하이라이트 공연을 통해 부평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후원회원들에게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

화사하고 새로운 얼굴로 뵙습니다!

부평구문화재단 새로운 BI 발표



부평구문화재단의 얼굴이 즐거워졌다. 지역사회에 문화예술을 전파하여 구민의 풍요로운 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소명을 안고 있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세련되고 화사한 BI가 새롭게 탄생했다. 전통 조각보와 칠고놀이 퍼즐을 모티브로, 부평의 ‘ㅂ’을 형상화했으며 여러 모양으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BI로 부평구문화재단의 변신을 알렸다. 더해 부평의 ‘ㅍ’도 심볼마크로 형상화해 응용도를 높였다.

앞으로 부평구문화재단은 새로운 BI와 함께 다양하고 재미있는 변신을 통해 구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부평의 문화예술 창조에 더욱 앞장 설 것이다.

MINI INTERVIEW

김장우

그레픽 타이포그래피 전문회사, 스트라이크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부평문화재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내는 요소는 무엇이었나.

지역밀착형으로 누구나(시민 주도형) 즐기는 문화를 핵심 가치로 생각하고 작업했다.

새로운 BI와 함께 부평을 소망한다면?
뮤직시티라는 슬로건처럼 문

화를 통해 설레고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

BI가 전통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 글로벌 부평을 도모할 수 있을까?

부평구문화재단의 역할과 좋은 방향이 전통을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디자인에서도 심볼마크인 한글 이니셜은 전

통의 형상을 넘어 다채로운 핵심가치들의 형태(아이콘)로 응용될 예정이다.

개인적 소망은?

부평구문화재단의 지속가능한 가치와 기능에 기여하는 BI가 되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는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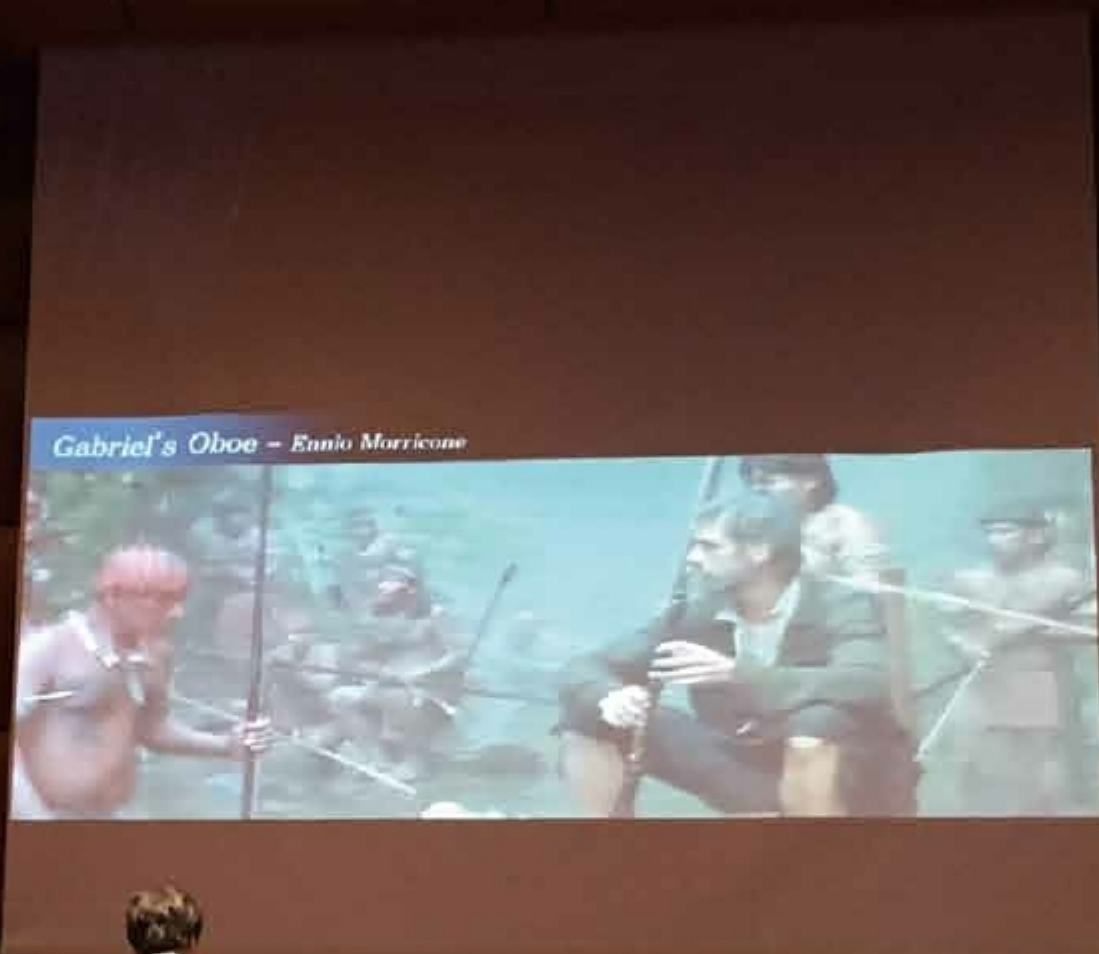
미리 보 다

부평문화재단이 2018년을 바라봅니다.

2017년보다 더 많은 부평의 모든 사람들이 부평문화재단이 마련한
공연, 전시, 교육 선물을 접하고 행복한 생활을 가꾸기를 희망합니다.

미리 보시고 부평아트센터에서

풍성한 문화가 있는 삶을 계획하면 좋겠습니다.



What's Next

- 2018 신년음악회
- 2018 부평키즈페스티벌
- 2018 부평술아 음악음악제
- 애니메이션 콘서트
- 클래식 주미강 리사이틀
- 우리 아빠가 최고야!

Calendar

WHAT'S NEXT 1



웅장하고 화려한 우리 국악

2018 신년음악회



일시

1.25(목) 19:3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능

출연진

KBS 국악관현악단, 김영임,
강은일, 정철기, 김준수,
이봉근, 부평구립풍물단

문의

032-500-2000

우리음악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국의 대표 'KBS 국악관현악단'

경기민요의 대가, 대한민국의 국민명창 '김영임'

해금을 통한 크로스오버 음악의 선구자 '강은일'

국악계의 아이돌, 떠오르는 신예 소리꾼 '김준수'

KBS 불후의 명곡 떠오르는 스타, 소리꾼 '이봉근'

부평아트센터와 KBS 국악관현악단이 만나 화려한 국악 무대를 선보입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은 전통국악은 물론, 다양한 장르를 통한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국악의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관객과 호흡하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관현악단입니다. 이번 '2018 신년음악회'에는 국민명창 김영임, 해금의 디바 강은일, 국악계의 아이돌 김준수, 만능 소리꾼으로 불리는 이봉근 등의 협연을 통해 귀를 사로잡는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2018년, 부평아트센터에서 그 어느 해 보다 웅장하고 화려한 국악의 향연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WHAT'S NEXT 2



부평의 밝은 미래를 노래하다

2018 부평솔아 솔아음악제

일시

4.20(금) 19:00

장소

부평아트센터 야외무대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능

출연진

MC스나이퍼, 김원중,
신형원 외

*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032-500-2000

뿌리 깊은 부평 음악의 가치를 선보일 특별한 음악회!

뿌리 깊은 부평 음악의 가치, 창조적인 도시발전의 길을 열 수 있는 '2018 부평솔아솔아음악제'로 교감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음악도시 부평은 대중음악이 탄생한 곳이자 민중가요의 산실이며 키보드 연주자 김청산, 재즈의 대부 신중현, 대한민국 대표 여가수 현미 등 쟁쟁한 음악인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가요 '아침 이슬'을 작곡한 것으로 유명한 작곡가 김민기는 부평의 봉제공장에서 일하며 '상록수'를 작곡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2018 부평솔아솔아음악제'는 다시 한번 대중가요를 통해 치유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음악도시 부평에서, 음악으로 함께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WHAT'S NEXT 3



부평아트센터 우수 클래식

클라라 주미 강 리사이틀



일시
4.13(금) 20: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능

출연진
클라라 주미강(바이올린),
김재원(피아노)

문의
032-500-2000

세계의 무대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대표 바이올리니스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의 리사이틀 공연이 열립니다. '클라라 주미 강'은 1987년 독일 태생으로, 3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해 어려서부터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함부르크 심포니 등 독일의 저명한 악단과 협연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4살 때 최연소 나이로 만하임 국립음대 예비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16살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쳤고, 국내외 유수의 콩쿠르를 휩쓸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중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그녀만의 바이올린 선율과 탁월한 음악성, 이에 버금가는 예술가로서의 스타성은 세계의 클래식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부평아트센터에서 개최될 '클라라 주미강 리사이틀'은 바이올린 독주곡 <바흐:샤콘느>를 연주하고, 피아니스트 김재원의 반주와 함께 최고의 공연을 선보일 것입니다. 마음을 휘감는 특색있는 바이올린 사운드로 연주될 클래식 명곡들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PROGRAM

J.S.Bach
Partia No. 02
BWV.1004

Schumann - 3
Romanzen, Op.94
① Nicht schnell
② Einfach, innig
③ Nicht schell

Saint-Saëns
Rondo
capriccioso, Op.28

Tchaikovsky
① Serenade
Melancolique Op.26
② Waltz-Scherzo,
Op.34
③ Melody from
Souvenir d'un lieu
cher

Brahms :
3 Hungarian
Dances No.6, No.8,
No.17

WHAT'S NEXT 4



복적복적 킷킷 예술과 놀자!

2018 부평 키즈페스티벌

일시
5.5(토) 14:00~18:00

장소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공연
애니메이션 콘서트
5.4(금) / 전석 2만 원
우리 아빠가 최고야!
5.1(화)~5.3(목) / 전석 2만 원

전시
아빠를 찾아라
4.26(목) ~ 5.27(일) / 무료

문의
032-500-2000

온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

어린이가 가장 행복한 날 5월 5일, 부평아트센터에서 즐기는 신나는 소풍!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부평키즈페스티벌! 어린이날을 맞아 부평아트센터에서 신 나는 놀이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마음껏 미술 솜씨를 뽐낼 수 있는 어린이 그리기 대회를 비롯해 오감 만족의 다양한 체험행사, 함께하는 기쁨과 절약 실천을 배우는 우리 동네 나눔 장터, 눈과 귀를 사로잡을 무료 공연과 가지각색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부평구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온 '부평키즈페스티벌'이 2018년에도 개최됩니다. '2018 부평키즈페스티벌'에서 가족 모두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WHAT'S NEXT 5



W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애니메이션 콘서트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음악 여행!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불러일으킨 '렛잇고(Let it go)' 열풍, 기억하시나요? <겨울왕국>은 다이내믹한 화면과 감동적인 주제곡들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일명 '국민 애니메이션'이 되었습니다. <겨울왕국>의 주제곡 '렛잇고(Let it go)' 외에도 주옥같은 애니메이션 주제곡들이 40인조의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로 재현됩니다. 부평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애니메이션 콘서트>는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라퐁젤, 물란 등의 명작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을 영상과 함께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근사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공연 중 직접 연주에 참여하는 경험은 출연자와 관객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행복과 희망, 사랑을 이야기하는 음악들로 즐거운 5월, 마음이 따뜻해지는 <애니메이션 콘서트>와 함께하세요!



일시

5.4(금) 19:3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관람가

출연진

W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김남윤) 외 다수

문의

032-500-2000

WHAT'S NEXT 6



어린이 베스트셀러 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일시

5.1(화) 14:00, 17:00

5.2(수)~5.3(목) 11:00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관람가능

출연진

극단 북주머니

문의

032-500-2000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원작!

우리나라 독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 <월리 시리즈>, <숲속으로>, <돼지책> 등 독특하고 뛰어난 작품들로 전 세계에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앤서니 브라운의 대표작 <우리 아빠가 최고야!>가 어린이 뮤지컬로 찾아옵니다. 어린이 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는 무엇이든지 척척해내는 멋진 아빠의 모습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표현한 어린이 뮤지컬입니다.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이야기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는 흥겨운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관람하는 공연으로, 아이들에게 최고의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림책 작가로서는 최고의 명예인 안데르센 상을 수상한 앤서니 브라운의 원작으로 구성된 어린이 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연



전시



예술교육



문화사랑방 공연



문화사랑방 예술교육



상주단체 공연

웅장하고 화려한 우리 국악

2018 신년음악회



일시	1.25(목) 19:3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4만 원 / S석 3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능
출연진	KBS 국악관현악단, 김영임, 강은일, 정철기, 김준수, 이봉근, 부평구립풍물단
문의	032-500-2000

우리 음악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국의 대표 'KBS 국악관현악단'
경기민요의 대가, 대한민국의 국민명창 '김영임'
해금을 통한 크로스오버 음악의 선구자 '강은일'
국악계의 아이돌, 떠오르는 신예 소리꾼 '김준수'
KBS 불후의 명곡 떠오르는 스타, 소리꾼 '이봉근'

부평아트센터와 KBS 국악관현악단이 만나 화려한 국악
무대를 선보입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은 전통국악은 물론,
다양한 장르를 통한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국악의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시도
를 통해 관객과 호흡하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관현
악단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국민 명창 김영임, 해금의 디
바 강은일, 국악계의 아이돌 김준수, 만능 소리꾼으로 불
리는 이봉근 등의 협연을 통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
입니다. 부평아트센터에서 그 어느 해보다 웅장하고 화려
한 국악의 향연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과 출연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클래식 동화 뮤지컬

페페의 꿈



일시	1.20(토) 11:00, 14:00 / 1.23(화)~1.25(목) 11:00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단체 별도 문의)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관람가능
출연진	극단 동방
문의	032-500-2000



스폰지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클래식!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던 클래식을
만화영화처럼 만나는 시간

'페페의 꿈'은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세계적인 인상주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어미거위 모음곡>을 모티브로 한
신개념 클래식 음악 콘서트입니다. 극중 주인공인 '페페'
가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와 함께 명작동화를 만나볼 수 있
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일러스트 영상과 눈앞에서 흘러나
오는 피아노 연주로 아이들이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클래
식 음악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는 동화 뮤지컬입니다.



공연



전시



예술교육



문화사랑방 공연



문화사랑방 예술교육



상주단체 공연

다섯 번째 이야기_호르는 도시

부평작가열전



일시	2.22(목) ~ 3.25(일) 10:00~18:00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문의	032-500-2000, 2067



2018년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부평작가열전으로
부평만의 봄바람을 느껴보자.

부평의 중견작가와 신진작가가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방법들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미술활성화
프로젝트 성격의 연례 전시 프로그램입니다.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창조한 지역의 역량있는 작가들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2018 상반기 어린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어린이 연극학교



일시	2.24(토) ~ 7.14(토) 매주 토요일 / 14:00 ~ 16:00
장소	부평아트센터 대연습실
대상	8 ~ 13세 어린이 40명
참가비	20만 원 (총 20회)
문의	032-500-2065



어린이들이 연극 공연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 수업에는 전문 공연장에서
연극 공연을 직접 진행함으로써 어린이들이 폭넓은 예술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2018 봄방학 어린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연극놀이교실



일시	2.19(월) ~ 2.23(금) 3·4학년 10:30~12:00 / 1·2학년 13:30~15:0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대상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각 반 13명
참가비	5만 원 (90분 수업, 5회)
신청·접수	2.1(목) 오전 10시부터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선착순)
문의	032-505-5951



초등학생의 봄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소재로 놀이와
연극적 활동으로 구성된 체험형 프로그램입니다.

* 프로그램과 출연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



전시



예술교육



문화사랑방 공연



문화사랑방 예술교육



상주단체 공연

지역예술가(단체) 역량강화 아카데미 지역에서 예술하기



일시	3.5(월) ~ 3.26(월) 매주 월요일 / 15:00~18: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대상	예술가, 예술단체 구성원, 지역문화예술기관 종사자
참가비	무료 (총 4회)
문의	032-500-2065

음악과 관련된 예술분야를 전문가에게 듣고 지역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펼칠 수 있게 접촉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 배우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음악감수성교육 <오디>



일시	3.15(목) ~ 5.17(목) 매주 목요일 16:30~17:15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대상	4~5세 유아 + 엄마 (10명)
참가비	12만 원 (45분 수업, 10회)
신청·접수	2.26(월) 오전 10시부터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선착순)
문의	032-505-5951

멜로디, 리듬감을 비롯하여 다양하고 민감한 유아의 음악적 능력을 계발하고, 능동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어 마음으로 이해하고 상상하게 하는 오디에이션 음악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프로그램과 출연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평아트센터 우수 클래식 클라라 주미강 리사이틀



일시	4.13(금) 20: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능
출연진	클라라 주미강(바이올린), 김재원(피아노)
문의	032-500-2000



세계의 무대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대표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은 4살 때 최연소로 만하임 국립음대 예비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16살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며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쳤고, 국내외 유수의 콩쿠르를 휩쓸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중입니다. 그녀는 부드럽고 탁월한 음악성과 이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매력으로 세계의 클래식 애호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바이올린 독주곡 <바흐:샤콘느>를 연주하고, 피아니스트 김재원의 반주와 함께 최고의 공연을 선보일 것입니다.

PROGRAM

- J.S.Bach – Partita No. 02 BWV.1004
- Schumann – 3 Romanzen, Op.94
 1. Nicht schnell
 2. Einfach, innig
 3. Nicht schell
- Saint-Saëns : Rondo capriccioso, Op.28
- Tchaikovsky
 1. Serenade Melancolique Op.26
 2. Waltz-Scherzo, Op.34
 3. Melody from Souvenir d'un lieu cher
- Brahms : 3 Hungarian Dances No.6, No.8, No.17

부평의 밝은 미래를 노래하다 2018 부평술아술아음악제



일시	4.20(금) 19:00
장소	부평아트센터 야외무대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능
출연진	신형원, 김원중, MC스나이퍼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032-500-2000

뿌리 깊은 부평 음악의 가치를 선보일 특별한 음악회!
뿌리 깊은 부평 음악의 가치, 창조적인 도시발전의 길을 열 수 있는 ‘2018 부평술아술아음악제’로 교교감과 치유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중가요를 통해 부평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양희경과 함께하는 <달콤한 클래식> 2018 부평아트센터 브런치 콘서트



일시	4.26(목) 11:00 ~ <첫사랑, 달콤하고 씁쓸한> 5.31(목) 11:00 ~ <청춘, 내 소싯적에> 6.28(목) 11:00 ~ <여행, 설레임을 찾아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 관람가능
출연진	사회자 : 양희경 연주자 : 아벡 스트림 콰르텟 외 다수
문의	032-500-2000

아름다운 클래식과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의 여유!

부평아트센터 대표 공연 <브런치 콘서트>가 2018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포근한 목소리와 편안한 진행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배우 ‘양희경’이 그녀만의 따뜻한 해설로 <브런치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특히, 매회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 대화를 나누며 관객들의 시름과 고민 등 다양한 이야기로 더 풍성한 클래식 이야기를 선사합니다. 매회 다르게 선정되는 주제와 사연으로 아름다운 클래식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달콤하고 씁쓸한>

- R. Schumann piano quartet in E flat major op.47 중 3rd mov. Andante cantabile
- N. Paganini violin sonata no.6 for violin and guitar.
- R. Schumann "traumerei" piano solo
- Chopin "nocturne" op.9 no.2 piano solo

<청춘, 내 소싯적에>

- M. Ravel string quartet in F major 중 2nd mov.
- Borodin string quartet no.2 중 3rd mov
- J. Strauss II Fledermaus overture (arr. for wind quintet by 김현준)
- G. Ligeti Six Bagatelles 중 1,3,4 악장

<여행, 설레임을 찾아서>

- Mozart divertimento in D major(오스트리아)
- Vivaldi four season 중 "summer"
- C. Debussy "clair de lune"(프랑스)
- C. Debussy "the girl with the flaxen hair"(프랑스)
- Bizet "Carmen" 중 habanera & Toreador song (스페인)

※ 공연 전 사연과 신청곡을 신청 받습니다. 인터넷 또는 현장접수를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말씀해주세요.

※ 공연 종료 후 커피와 다과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과 출연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 기획 전시 아빠를 찾아라



일시	4.26(목) ~ 5.27(일) 10:00~18:00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문의	032-500-2000, 2067



가정의 달, 아이들의 예술적 상상력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미술관으로의 나들이!

‘아빠를 찾아라’는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미술관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족’이라는 소재가 상상력과 창의력의 공간으로 변신한 복합미술 전시입니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라는 물음으로 대답을 자연스럽게 들려줍니다. 아빠의 직업과 성격을 스티커와 그림을 통해 표현하며 그림책을 만들어 보는 시간부터 창의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낼 수 있는 대형 캔버스까지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표현하는 다양한 경험들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2018
05



공연



전시



예술교육



문화사랑방 공연



문화사랑방 예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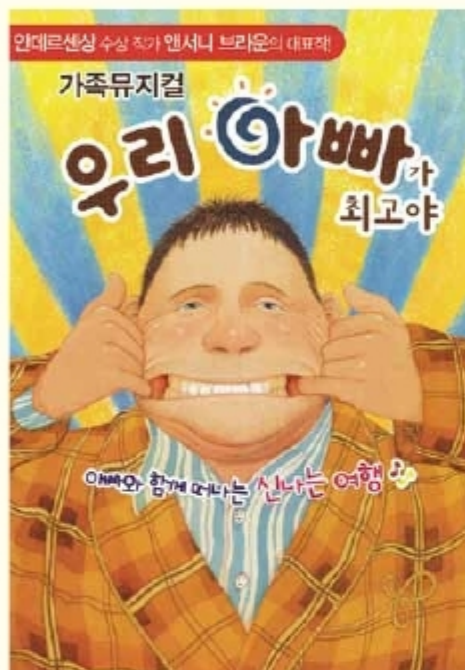


상주단체 공연

어린이 베스트셀러 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일시	5.1(화) 14:00, 17:00 / 5.2(수)~5.3(목) 11:00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관람가능
출연진	극단 북주머니
문의	032-500-2000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원작!

<우리 아빠가 최고야!>는 무엇이든지 적적 해내는 멋진 아빠의 모습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표현한 어린이 뮤지컬입니다. 흥겨운 노래를 함께 따라부르며, 아이들의 무한한 호기심을 키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 아빠가 최고야!>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 평일 오전 공연은 단체관람이 진행되오니
개인 예매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과 출연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W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애니메이션 콘서트



일시	5.4(금) 19:3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관람가
출연진	W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김남운) 외 다수
문의	032-500-2000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익숙한 애니메이션 영상과 40인조의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하는 <애니메이션 콘서트>가 부평아트센터를 찾습니다.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라퐁젤, 물란 등 익숙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듣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공연 중간에 참여 연주 시간을 통해 출연자와 관객이 소통하며 아이들의 감성지수와 부모님의 행복지수까지 높여드릴 것입니다.



북적북적 키크키크 예술과 놀자! 2018 부평키즈페스티벌 부키프 초록누리축제



일시	5.5(토) 14:00~18:00
장소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공연	애니메이션 콘서트 5.4(금) - 전석 2만 원 우리 아빠가 최고야! 5.1(화)~5.3(목) - 전석 2만 원
전시	아빠를 찾아라 4.26(목)~5.27(일) - 무료
문의	032-500-2000



온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

어린이가 가장 행복한 날 5월 5일,
부평아트센터에서 즐기는 신 나는 소풍!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부평키즈페스티벌! 어린이 그리기 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행사, 우리 동네 나눔 장터, 무료 공연과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평구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온 '부평키즈페스티벌'이 2018년에도 계속됩니다. 온가족이 다함께 부평키즈페스티벌에서 행복한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에 의한, 청소년들만의 콘서트가 열린다!
딱딱하고 교과서적인 음악회는 이제 NO!

2018 청소년 브런치 콘서트 ①

베이스 함석현과 함께하는 <브라보 콘서트>

신나서 한번! 재밌어서 한번! 유쾌해서 한번! 다 함께 외치는 <브라보 콘서트>. 베이스 함석현을 주축으로 소프라노 구은경의 유쾌한 성악 공연과 현악 연주,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오보에와 바순 연주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마술공연까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신나는 공연과 함께 가벼운 브런치까지 즐기는 일석이조 콘서트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일시	5.30(수) 11: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만 5천 원(단체 별도 문의)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능
출연진	함석현, 구은경, 유지현, 허희정, 인태영, 손미래 외 다수
문의	032-500-2000

※ 공연 후, 음료수와 다과를 제공합니다.

2018 청소년 브런치 콘서트 ②

재즈피아니스트 진보라와 함께하는

<재즈 클래스>

수려한 외모와 개성있는 연주로 폭 넓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재즈피아니스트 진보라가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선보입니다. 매일 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아름답고 희망찬 음악으로 지친 마음을 활기차고 행복하게 회복할 수 있는 힐링 콘서트로 준비했습니다. 진보라 트리오의 허진호와 이성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즈 스탠드와 즉흥연주를 통해 학생들과 호흡하며 즐기는 환상적인 무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시	6.27(수) 11: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만 5천 원(단체 별도 문의)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능
출연진	진보라, 허진호, 이성규
문의	032-500-2000

※ 공연 후, 음료수와 다과를 제공합니다.



2018
06

2018
07



공연



전시



예술교육



문화사랑방 공연



문화사랑방 예술교육



상주단체 공연

제19회 부평구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세계 속의 부평



일시	5.25(금) 19:3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능
출연진	부평구립여성합창단
문의	032-500-2000

신비로운 화성과 아름다운 음색을 자랑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여성합창단

올해로 창단 19주년을 맞은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은 인천 합창제 대상, LG휘센전국합창대회 최우수상, 유관순전국 합창경연대회 대상 등 전국대회 15여 회를 수상한 최고 수준의 여성 합창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을 이끄는 부평구 문화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9회 부평구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위스콘신 주립대학 여성합창단을 초청해 미국 및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민요를 주제로 글로벌한 합창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삶과 일상을 그린 음악극을 선보이며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감동의 무대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이 들려주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세계 각국의 음악을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과 출연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체험전시 헬로 브릭



일시	6.16(토) ~ 8.19(일) 10:00~17:30
체험시간	100분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어린이 1만 7천원 / 어른 1만 2천원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문의	032-500-2000, 2067

창의력과 재미를 모두 갖춘 헬로브릭을 통한
오감만족 블록체험!

아이들의 창의적인 장난감인 블록이 가득한 어린이 체험 전 '헬로 브릭'이 부평아트센터를 찾아옵니다. '헬로 브릭'은 우리 주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고 온몸으로 체험하며, 공간에 대한 지식과 건축물에 대한 호기심을 일깨워주는 오감만족 체험프로그램입니다. 블록놀이를 통하여 다양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실체크기의 블록을 친구와 힘을 합쳐 만들어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쿡앤아름과 테마룸, 플레이룸 3개의 방을 통해 단순한 블록놀이를 넘어 아이들의 두뇌까지 발달시키는 알찬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 상기 전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평아트센터

2018 상반기

시즌 패키지 가이드

시즌 패키지 예매 방법



엔티켓 enticket

- 전화예매 1588-2341 (온라인 예매 불가)
- 예매수수료
예매 건당 1,000원 고객 부담

※ 상반기 시즌 패키지 구매하신 모든 관객에게 부평구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보다'와 '기념품 세트'를 드립니다.

- 예매수수료
예매건당 1,000원 고객부담
- 패키지 상품 구매 후 취소 및 환불 가능(부분 취소 불가)
- 1개 이상 공연관람 이후 취소 및 환불 진행시 차액(정가기준) 지불
- 공연 일정 변경 :
해당 공연 1일전 오후 5시(1일전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 오후 5시)
- 공연일정 변경 시, 해당 공연의 좌석이 매진일 경우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시야장애석은 패키지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 각 공연의 티켓 상황에 따라 일부 패키지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브런치 패키지

세 작품 모두 선택 시
30% 할인



달콤한 클래식
<첫사랑, 달콤하고 쓸쓸한>
4.26(목)



달콤한 클래식
<청춘, 내 소싯적에>
5.31(목)

달콤한 클래식
<여행, 설레임을 찾아서>
6.28(목)

키즈 패키지

두 작품 이상 선택 시
30% 할인



클래식 동화 뮤지컬
<페페의 꿈>
1.20(토) ~ 1.25(목)



부평키즈페스티벌
<애니메이션 콘서트>
5.4(금)



부평키즈페스티벌
<우리 아빠가 최고야!>
5.1(화) ~ 5.3(목)

뮤직 패키지

두 작품 모두 선택 시
30% 할인



<2018 신년음악회>
1.25(목)



부평아트센터 우수클래식
<클라라 주미강 리사이틀>
4.13(금)

자유 패키지

2018 상반기 기획 공연 중,
5작품 이상 선택 시

40% 할인

All in One 패키지

1.19(금)까지 2018년 상반기
시즌패키지 모두 구매 시

50% 할인



튼튼한 후원부평구문화재단후원회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는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부평구민들이 문화예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고 다양한 교류와 소통으로 아름다운 문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후원회 신청방법

- ① 방문신청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 ② 우편신청 인천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아트센터 내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 ③ 신청문의 032-500-2081

후원회원 등급 및 예우

기업 / 개인	해누리 (5천만 원)	기업 브랜드 타이틀 제공 (기획공연에 한해 연간 2회)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40장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후원사 홍보 부스 설치 (기획공연시 연간 2회)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4회)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50%)	평생회원
	달누리 (2천만 원)	기업 브랜드 타이틀 제공 (기획공연에 한해 연간 1회)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30장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후원사 홍보 부스 설치 (기획공연시 연간 1회)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3회)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40%)	
	꽃누리 (1천만 원)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20장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2회)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30%)	
	별누리 (5백만 원)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10장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개인	구름 (3백만 원)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10장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30%)	5년
	외 (1백만 원)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6장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5년
	가람 (5십만 원)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4장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3년

기본예우 홈페이지 후원자-기업명 표기, 홈페이지 후원회 페이지 운영 (소식 업데이트), 해누리공연장 로비 벽면 회원 명판 부착, 후원회 카드 발행

후원해주시는 분들

달누리	별누리	구름	외	산중백
최도원 대원인물(주) 대표이사	홍종국 삼산월드컨벤션센터 대표	박인덕 (주)상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맹익재 클라이젠(주) 대표이사	심정1동 주민자치위원장
꽃누리	박홍식 부평역사(주) 대표이사	이용진 인그리디언코리아 유한회사 이사	허난영 (재)세종문화회관 팀장	심수연 부개3동 주민자치위원장
노태손 생크빅문고 대표	함국종 부원산업(주) 대표	최주승 (주)대경아이스 대표	이혜민 박옥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정에 박영옥 삼우관광 대표
성낙경 (주)한빛기술 대표이사	배정태 더페이스샵 대표	김용택 은세계교회 GVC 목사	강경애 리디안 우쿨렐레 오케스트라 단장	오중석 한국통운(주) 대표이사
서태호 (주)난다 고문	김효택 (주)경인 대표이사	김효배 북구환경(주) 대표이사	박경운 세무그룹토는 대표세무사	한유순 광원아트홀 관장
김영무 (주)하온아텍 대표이사	이승희 (주)두전금형 대표이사	전봉운 부평환경(주) 대표이사	이계찬 지인조경(주) 대표이사	장지연 광원건설(주) 회장
이희재 (주)우성아비비 대표이사	기중현 (주)연우 대표이사	한재현 동일환경(주) 대표이사	김유환 관세법인 사인 관세사	황영희 가현텍스 세무사
정규경 의료법인 한길안과 이사장	심수일 삼정가스공업㈜ 대표이사	안용현 한국그린환경(주) 대표이사	은일영 의회사무국장	고동희
이경환 (주)비에이지 대표이사	김성국 거궁 대표	민병현 (주)평화환경 대표이사	신희식 아침을여는사람들 대표	고현영 한국노무법인 대표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		정혜자 (주)삼원환경 대표이사	윤대기 법무법인 로열 변호사	곽경현
조덕령 (주)덕성그린텍 대표이사		권영조 (주)영메디칼바이오 대표이사	최창석 은성산업(주) 대표	장하주 유현광고 대표
			권복환 1급부평자동차공업사 대표	박창호 인영자동차공업(주) 대표이사
			안중영 정수미크론 대표	



시민회원(CMS)약정 안내

약정금액

- ① 연간 약정금액 3만원
- ② 문화나비 가맹점 연간 36만원 (연, 월 단위 선택납부 가능)
- ③ 기타 희망금액 약정 가능

기부자 예우

- ① 연례보고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 ② 정기간행물과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개(비공개로 신청 가능)
- ③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20~30% 할인
- ④ 문화나비(가맹점) 현판 부착
- ⑤ 회원 음악회(후원의 밤) 1회 초청

지정내용

기부금 사용을 부평구문화재단(후원회)에 일임하여, 별도 조건없이 기부

관련문의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032-500-2081

문화나비(가맹점)

국민은행 산곡동지점 백두산 참숯화로구이 함흥관 외식산업주식회사
명마가든 부일정육식당 해주막국수 정감자탕

CMS 운영절차

